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최은경[†], 이영아^{††}

1. 서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조선에 도입되기 시작한 서양의 근대 의학은 전통 한의학과는 몸에 대한 관점, 질병에 대한 지식 및 분류 체계, 치료 등이 크게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수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서양 근대 의학이나 서양식 병원은 가난하고 힘없는 조선 민중들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가 독자 의학 상담란을 개설해 서양 근대 의학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의료, 건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오늘날 신문, 잡지뿐 아니라 수많은 텔레비전 채널, 특히 종합 편성 채널이 ‘몸’과 관련한 지식(이 가운데는 근거 없거나 잘못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을 의학자 혹은 건강 관련 전문가라는 직함을 단 패널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1930년대에 이미 이러한 기획을 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상 병원”은 『동아일보』에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연계된 의학 상담 코너이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도 1930년대부터 “가정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qchoiek@gmail.com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sleeya@naver.com

의학”이란 질의 응답형 의학 지식 코너를 연재하였고, 『조선중앙일보』에서도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위생 문답”이란 질의 응답형 의학 지식 코너를 두었다. 즉 신문의 상담, 질의 응답 코너는 1930년대 의학 지식 전달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경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신문 독자들에게 지면상의 공개적 의학 상담은 차츰 익숙해져 갔고 점점 더 적극적인 독자의 호응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1900년 전후부터 이미 조선에는 신문에 투고를 하는 독자들이 존재해 왔다.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에도 “기서”, “편편기담”, “투서”, “외방통신난” 등의 코너에 비정기적으로 독자들이 신문사에 보내 온 원고가 실렸다. 그러나 이때에는 개별적, 개인적 투고였으며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이 다른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애국, 계몽’에 관한 글의 기고였다는 점에서 ‘독자’라기보다는 ‘재야의 필자’에 가까운 것이었다.¹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독자들이 참여하고, 신문에 실린 기사, 문학, 문화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글이 등장한 ‘독자 투고’는 1910년대 『매일신보』 때부터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조선인 신문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오락성, 흥미성 기삿거리나 대중적 연재 소설 게재에 역점을 두었고,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획에도 노력을 기울였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독자 투고는 1912년 이후 “독자구락부”, “매일구락부”, “투서함”, “독자기별” 등의 이름으로 지속되면서 신문 연재 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비롯하여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 혹은 칭찬의 글들이 다양하게 실렸다.³

이후 일제의 문화 정치가 시작된 1920년대 이래로 민족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창간되면서 조선인 독자들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문사와 구독자 사이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신문을 통해 독자들이 상담을 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관련 전문가에게서 구하는 코너였다.⁴ 1930년대 신문사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

1 김영희, “『대한매일신보』 독자의 신문 인식과 신문 접촉 양상”, 한국언론사연구회 편,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39-378쪽;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4장 참조.

2 『매일신보』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대중성 획득’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3집 (2007), 43-81쪽 참조.

3 전은경, 『근대 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출판사, 2009), 47-65쪽 참조.

한 독자의 고민을 지면을 통해 상담해 주는 독자 문답란을 운영했는데, 기획 의도는 상업적인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개인의 사적인 고민이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공론의 장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⁵ 『조선일보』의 독자 문답란인 “어찌하리까”, 『조선중앙일보』의 “명암의 십자로”와 같은 경우가 결혼, 연애, 가족 갈등, 성 윤리 등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 선 대중들의 고민을 싣고 이에 대한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을 실어주는 코너였다면, 『동아일보』의 “지상 병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의학’의 문제로 드러내고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담이 오고갈 수 있는 지면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은 근대적 학교와 매체를 통하여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기른 독자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된 시기이다.⁶ 1910년대 이후 매년 보통학교 이상 졸업자가 대략 10만(1910년대 후반)에서 25만(1930년대 후반) 명씩 새롭게 배출되었는데, 이러한 문해력을 갖춘 독자들의 증가로 1929년 당시 조선인 신문 독자는 하루 총 8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정도였다고 한다.⁷ 식민지 시기 독자는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이 병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전통적 독자층이란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사서삼경 등의 한문 서적류를 읽는 전통적 식자층이거나 언문으로 된 고소설 등을 읽거나 낭독을 통해 즐기던 부녀자 및 문맹의 서민층을 일컫는다. 근대적 대중 독자는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 등으로서 주로 신문이나 잡지 등 근대 인쇄 기술로 생산된 조선 혹은 일본 텍스트들을 즐긴 독자들이다. 엘리트적 독자층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배층을 구성하는 존재들로서 지속적인 문자 훈련, 외국어 습득을 통해 전문 분야의 서적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독자를 말하며 당대 매우 소수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었다.⁸

이 중 신문의 의학 상담 코너에 상담 사항을 보내는 데에는 전통적 독자나 엘리트적 독자보다는 근대적 대중 독자에 속한 부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

4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권 (2005), 209-235쪽.

5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민음사, 2014), 6-8쪽.

6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 오성철, “1930년대 한국 초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32-33쪽.

8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56-58쪽.

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신문을 즐겨 읽을 만큼의 문해력과 지적 호기심을 갖추고 있었으나, 서양 근대 의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양 의학의 권위는 개항기부터 확립되어 왔으나, 의학에 대한 접근성은 낮았다. 1930년 의사 1인당 조선인 인구 수는 3만 명이나 되었지만, 같은 시기인 1928년 신문 1부당 인구 수는 21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접근성 차이가 현격하게 컸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는 서양 의학 지식이 유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일종의 지식 계급이었던 신문 독자층들은 내담이란 형식을 통해 의학 지식 전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신문 상담란은 일제 강점기 의학 지식에 대한 수용과 전파를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의 장(場)이 되었던 것이다. 독자들을 위해 개설된 의학 상담 코너를 통해 자신들의 몸에 대한 고민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질병, 몸, 치료제 등의 속설에 대해 질문하고 확인함으로써 의학 ‘전문 지식’을 의학 ‘상식’으로 전유(專有)하게 된다. 즉, 이 당시 신문 독자라는 일종의 근대적 지식 계급이 ‘내담’이란 형식을 통해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일보의 “지상 병원”이라는 의학 상담란은 일종의 공공의 장을 통해 드러난 일제 강점기 의학 지식에 대한 수용과 전파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이다.

본 연구는 동아일보 “지상 병원” 코너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의학의 이용과 전파의 측면에서 수용의 주체였던 일반 조선인, 그 중 적극적 수용 주체였을 근대적 독자층의 지식 수용 양상을 검토한다. 그 동안 일제 강점기 의학에 관한 연구에서 의학의 공급 주체인 조선총독부, 조선인 의사와 선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일제 강점기 건강 및 보건 상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다양한 의료 공급 주체가 섞여 있었고, 공급 주체의 문제는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러나 실제 일제 강점기 의료 이용 행태나 의학 지식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하다. 통계의 부정확성 탓에 의료 이용의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의료 이용이 매우 빈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¹⁰ 본 연구는 의학 지식 전파 및 수용 양상의 하나로 일제 강점기 신문 상담란에 주목한다. 즉 지식의 수용 주체로서 당시 대중에 주목하고 어떻

9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 366쪽.

10 이꽃메,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학 이용”, 『의사학』 15권 2호 (2006), 227-236쪽.

게 지식과 증상의 접점을 만들어나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의료 공급 주체, 빈약한 의료 이용이라는 기존 일제 강점기 연구들의 당대 의학 이용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 중 일부 적극 수용 계층의 활동 양상에 주목하고 이들의 수용 양상과 특징,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1930년 3월 15일부터 1940년 7월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의학 상담 코너 “지상 병원”을 분석한다. 이 부분에 있어 신문 상담란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신문 투고 양상이 실제 의료 이용 양태를 반영한다는 과장된 해석을 지양한다면, 신문 투고를 통해 당대 독자층의 담론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일제 강점기 사생활에 관한 고민 투고에 관한 연구, 개화기 제국신문의 여성 독자 투고에 대한 연구 등 투고를 통한 담론의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¹¹ 의료 분야의 투고 또한 실제 의료 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의학 지식의 수용과 해석, 담론의 형성 및 보급의 측면에 주목한다면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1930년대 신문의 의학 상담란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조선일보』나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가정 의학”, “위생 문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 및 여러 연구 여건상의 한계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자료에 국한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다른 신문의 의학 상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지상 병원”의 상담 형식, 내용 및 유형 분석을 통해 당시 대중들의 신체 인식을 고찰하는 한편, 당대 근대 서양 의학이라는 전문적 지식이 대중에게 ‘상식’의 형태로 수용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작업을 통해 신문 지상의 대중적 담론으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의학 지식의 전파 양상 일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상 병원”에 참여한 의사와 독자들

【問】 二十二歲된 총각이온데 二三年前부터 左便鼻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며 고름가튼 코스물이 흐르며 때때로 頭上을 긁을이면 냄새가 더 나고 누

11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권 (2004), 67-98쪽.

런코스물이 지르르 흐르니 原因과 療法을 指導해주시오(苦痛生)

【答】蓄膿症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手術을 바다야됩니다(世專外科 李容高 博士)¹²

“지상 병원”은 1930년 3월 15일 위와 같이 22세 총각의 축농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한 상담으로 연재를 시작하여 1940년 7월 9일까지 지속되었다. 『동아일보』가 중단된 1940년 8월 11일의 한 달 전까지도 연재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지상 병원”이 그만큼 꾸준한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장수 코너’였음을 의미한다. “지상 병원”은 통상 2-3일에 한 번 간격으로 연재가 실렸으나 열흘 간격으로 실리기도 하는 등 연재 간격은 불규칙했다. 그에 따라 한 번 연재할 때마다 실린 상담 건수도 불규칙적이어서, 최소 1건에서 최대 16건까지 실렸다. 연재를 담당한 의사들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한꺼번에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연재 간격과 상담 건수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게재 주기나 분량 등이 불규칙한 가운데에도 연재는 1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지상 병원”이 연재된 횟수는 총 1,597회였으며 총 상담 건수는 3,888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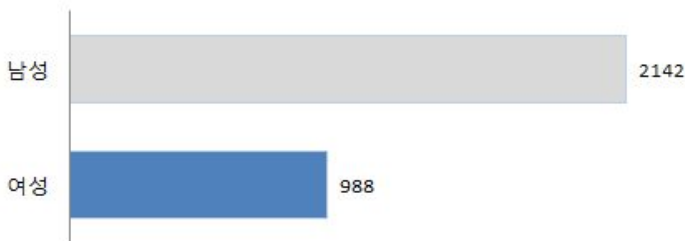


그림 1. “지상 병원”에 참여한 독자의 성별(단위: 명)

“지상 병원”에는 다양한 층의 독자들이 참여했다. “지상 병원” 편집부는 상담 내용을 투고할 때 내담자의 성별과 연령을 기재토록 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700건 가량 있었지만 대다수 사연에는 성별과 연령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2,142명으로, 여성 988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그림 1). 이처럼 상담에 있어서 남성 독자의 참여가 훨씬 많았던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의학 지식 습득에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맹률에서

¹²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3. 15.

남녀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1930년 당시 국세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문맹률이 남성 63.9%, 여성 92.04%(통합 77.73%)로 30%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¹³ 그러한 차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여성들의 참여 또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와 같이 여성들도 자신의 몸과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문】 二十七세 여자. 三年 전까지 약 六년간 녀교원. 랭이 심하여 월경이 심히 적고 빛이 검붉고 누르고 소변의 분량이 적고 회수가 자즈며 시원히 보이지 않는 듯한 감이 잇스며 그릇에 바다 노호면 누르고 붉고 탁해집니다. 안색이 창백하며 전신이 여이고 소화 불량이 심합니다. 또 계란 흰자가튼 대하중도 잇고 두통, 현기도 납니다. 변비도 심합니다. 十九세에 결혼하얏으나 생산도 못하고 결혼 이후 차차로 이 병이 생기엿습니다. 남편이 결혼전 림질을 알엇으나 완쾌하얏다 합니다. 조흔 치료법을 명기해 주십시오(일독자)

【답】 만성방광염에 자궁실질내막염 가트오니 알에와 가튼 약을 먹어보시오(하략)¹⁴

내담자의 연령으로는 10대 후반부터 30대가 주를 이루지만 범위는 넓어 생후 20여 일의 신생아부터 80세 노령까지 다양하였다.¹⁵ 투고자의 연령이 10대 후반부터 3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상담자의 연령 분포가 몸에 이상(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과 관계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있고 식자율과 신문 구매력 등 신문에 투고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갖춘 독자들이 주로 투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신에 신생아나 고령의 노인이 상담을 했다는 것은 증상이 심각할 때 환자의 가족들이 대신 투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1930년 당시 가족 중에서 한글 해독자가 있는 조선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3-35%정도였으므로 이들에 의한 투고가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¹⁶ 따라서 투고 연령의 분포 자체는 당대 사회의 실제 질병의 분포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못 되지만, 어떤 연령에서 어떤 질병이 자주 발생하였는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건강 정보에 관심

13 노영택, “일제시기의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권 (1994), 131쪽.

14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2. 7. 14.

15 “머리가굴지안혀”, 『동아일보』, 1935. 7. 10; “현기증”, 『동아일보』, 1936. 2. 18.

16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 독자의 형성과 전개”, 제3절 참조

이 많은 조선인들에게 당대에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이 무엇이었는가,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독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이들은 대체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자들이었고 분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을 망라하였다. 당시 의료계에서 조선인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코너에 참여하였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연재에 참여한 과목은 내과(6명)였고, 정신과(신경과)와 치과는 각각 1명씩만 참여하였다. 연재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담에 참여한 의사들의 명단과 분야, 연재 참여 기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상 병원” 상담에 참여한 의사 명단(* 100회 이상은 굵은 표시 함)

전문과	이름	소속	연재횟수	연재기간	졸업학교	학위년도
내과	임명재	경성의전 내과	5회	1931. 1. 16. -1931. 2. 15.	경성의전	1930
	오한영	세브란스의전 내과	22회	1931. 8. 25. -1932. 4. 6.	세브란스의전	1934
	김동익	경성제대 이와이 내과	154회	1932. 2. 6. -1934. 9. 5.	경성의전	1932
	박종영	경성부립 진료소 시노사키 내과	116회	1932. 10. 11. -1938. 2. 12.	경성의전	1933
	김중화	간이보혈국 위생 상담소	28회	1936. 7. 12. -1938. 6. 18.	경성의전	1933
	김사일	경성제대 이와이 내과	26회	1939. 1. 31. -1940. 7. 9.	?	?
외과 정형외과	이용설	세브란스의전 외과	254회	1930.9.19. -1936. 8. 11.	세브란스의전	1937
	유상규	경성의전 외과	8회	1931. 11. 22. -1932. 3. 19.	경성의전	
	김하동	경성제대 마쓰이 외과, 도립수원의원	274회	1932. 10. 14. -1940. 5. 18.	경성의전	1933
산부인과	허신	경성제대병원 산부인과	59회	1930. 4. 8. -1931. 10. 6.	경성의전	1934
	윤태권	경성제대 산부인과	256회	1931. 11. 5. -1940. 7. 1.	경성의전	1939

전문과	이름	소속	연재횟수	연재기간	졸업학교	학위년도
소아과	이선근	경성제대 소아과	70회	1930. 3. 16. -1935. 11. 13.	경성의전	1941
	조동수	세브란스 소아과	7회	1939. 12. 5. -1940. 6. 3.	세브란스의전	1939
안과 이비인후과	유석창	중앙실비진료원, 사회영민중의원 이비인후과	132회	1931. 11. 5. -1940. 5. 9.	경성의전	1945
	민찬호	중앙실비진료원 안과/이비인후과	11회	1932. 3. 24. -1932. 6. 17.	경성의전	
	윤봉현	경성제대 안과	5회	1932. 6. 8. -1932. 8. 4.	경성제대	1945
	최상욱	경성제대 안과	21회	1932. 7. 25. -1932. 11. 1.	경성제대	
	고영목	적십자병원 안과	87회	1934. 2. 16. -1940. 3. 19.	경성의전	1939
정신과 (신경과)	안종일	경성제대 신경과, 전주마약중독치료소	199회	1932. 5. 28. -1938. 3. 11.	경성의전	1938
피부 비뇨기과	오원석	경성의전 피부과	89회	1930. 4. 2. -1932. 12. 5.	경성의전	1930
	이영준	세브란스의전 피부과	110회	1934. 2. 28. -1940. 6. 10.	세브란스의전	1933
치과	정보라	세브란스 치과	6회	1936. 7. 6. -1939. 1. 16.	세브란스의전	1959

가장 많이 상담을 제공한 상담의는 경성제대 마쓰이 외과 김하등(274회)이었고 그 다음은 경성제대 산부인과 윤태권(256회), 세브란스의전 외과 이용설(254회)이었다. 그 외 100회 이상 상담을 제공한 의사로는 경성제대 신경과 및 전주마약중독치료소 안종일(199회), 경성제대 이와의 내과 김동익(153회), 중앙실비진료원 유석창(132회), 경성부립 진료소 시노사키 내과 박종영(116회), 세브란스의전 피부과 이영준(110회) 등이 있었다.

김하등은 1926년 경성의전을 졸업하여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마쓰이 외과 교실 조수를 지내고 1933년 “고장 식염수 관장이 장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高張食塩水浣腸の腸管運動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성제대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초창기 인물로 유명하였다. 윤태권 또한 1925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1933년 경성제대 산부인과 교실에 들어

가 1941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39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용설은 세브란스 의전을 나와 1937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처럼 상담에 참여한 의사들은 당대 최고 학부였던 경성제국대학 조수로 근무하거나 의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당대 최고의 의학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들이었고, 이러한 점은 의학 상담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한 조선인 의사들은 경성의학전문학교(1035명, 의학교 및 대한의원 의학교 포함), 경성제대의학부(314명), 세브란스의전(726명, 1943년까지) 출신들을 합하면 대략 2천명 가량 되었고, 이 중 박사 학위를 받은 이는 세 전문학교 출신을 합쳐도 290명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 중 소규모 전문직 집단으로 서로 교류 및 왕래가 컸고 내담 의사로 상호 추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독자들의 상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투고자들에게 공지한 다음과 같은 대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

- (1) 매일 비빨같이 들어오는 지상 병원의 환자 여러분들은 다음의 제항을 주의하시서 꼭 그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¹⁷
- (2) 날마다 지상 병원에 드러오는 엽서는 참으로 놀랄만치 만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본의는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의 몇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일, 반듯이 엽서에 순한 글으로 쓰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괄호를 치고 한문자를 쓸 것. 일, 반듯이 병명(病名)을 간단하게 부칠 것. 일, 봉투에 너흔것과 한문자를 섞어서 쓴 것은 해답하지 안함.¹⁸
- (3) 一. 반신료는 첨부 마십시오. 지상 발표 외에는 개인대답은 절대로 아니합니다. 一. 고문제씨에게 직접 못지 마십시오.¹⁹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 병원”의 투고 엽서는 “빗발같이”, “놀랄만치”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투고에 대한 규정, 유의 사항의 형태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독자들에게 주지시켰다. 봉투에 들어 있는 상담은 봉투를 찢고 다시 봐야 한다는 점

17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3. 9. 27.

18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5. 1. 30.

19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2. 6. 28.

때문에 금지시켰고, 한자로 적힌 것은 투고 엽서를 분류하는 자들에게 보다 고난이도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제시켰던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3)번의 투고 시 유의 사항의 한 대목이다. (3)에서와 같이 “지상 병원” 투고 중에는 상담 의사들이 독자에게 답장을 보낼 때 필요할 “반신료”를 첨부해서 상담을 투고하거나 “고문 제씨(顧問諸氏)에게 직접 묻는” 형태로 상담 의사들에게 개인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공지를 1932년 6월 28일 외에도 1932년 7월 1일, 7월 13일, 7월 26일, 7월 30일, 8월 4일, 8월 10일, 8월 13일, 8월 18일, 9월 2일, 9월 7일, 9월 22일, 10월 6일, 11월 1일, 11월 4일, 11월 5일 1933년 1월 12일 등 수 차례 반복했다. 즉 당시 “지상 병원”에 투고하는 신문 독자들에게 상담 의사들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을 만큼 미더운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청탁’을 들어주기 난망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질문, 상담은 사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3. “지상 병원”에서 상담된 주요 질병과 그 치료 방법

1) “지상 병원”에서 상담된 주요 질병들

“지상 병원” 코너에서 상담된 증상 또는 질병을 많이 상담된 순서로 10가지를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상담된 증상 또는 질병은 신경 쇠약으로, 총 180회 지면에 등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상담된 질병은 임질이었다. 그 외에 기생충 질환, 매독, 치질, 여드름, 비염, 탈모, 중이염, 소변 이상, 대하증 등이 “지상 병원” 코너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단일 질병이 아닌 진료 분야별로 정리하면 <그림 2>과 같이 여드름, 탈모, 사마귀, 습진 등의 피부과 질병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상담된 분야는 월경 불순, 대하증, 임신 중 문제 등을 다룬 산부인과, 신경 쇠약, 신경질, 간질 등을 다룬 신경과(정신과), 남성의 성병을 포함하여 소변 문제, 생식기 약소, 각종 생식기 증상 등을 다룬 비뇨기과 순이었다. “지상 병원”에서는 피부과 계통의 가벼운 질환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임질, 매독, 산부인과적 문제 등 중한 질환들도 높은 빈도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지상 병원”에서 제일 많이 상담된 증상 및 질병 10가지

병명	상담 건수	병명	상담 건수
신경 쇠약	180 건	여드름	67 건
임질	115 건	비염	58 건
기생충 질환	75 건	탈모	54 건
매독	71 건	중이염	51 건
치질	69 건	소변이상	5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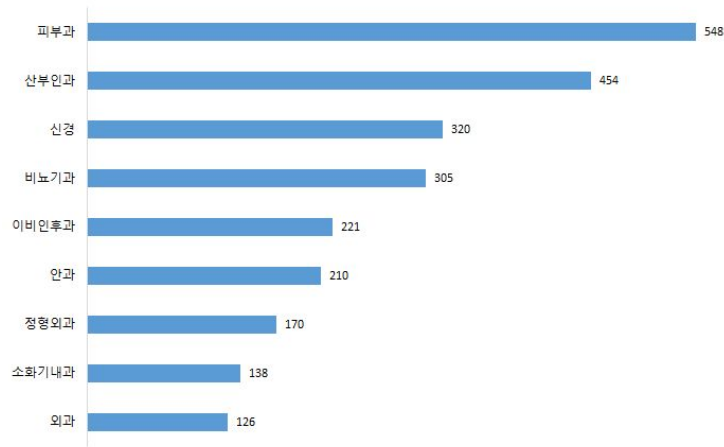


그림 2. “지상 병원”에서 상담된 증상 및 질병의 분류 및 건수

표 3. <그림 2>의 범례: “지상 병원” 상담 질병 및 증상의 분류

전문과	“지상 병원” 상담 질병 및 증상
피부과	여드름, 탈모, 사마귀, 습진
산부인과	월경 불순, 대하증, 임신 중 문제
신경계	신경 쇠약, 신경질, 간질
비뇨기과	소변 문제, 생식기 약소, 각종 생식기 증상
이비인후과	비염, 중이염, 축농증
안과	근시, 결막염, 도라흙, 시력 저하
소화기내과	소화 불량, 위장 질환
외과	치질, 흉터, 탈장
정형외과	관절염, 류마티스, 요통, 신경통

2) “지상 병원”에 나타난 질병과 상담의 특징

“지상 병원”에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가 아닌 투고된 주관적 증상들만을 대상으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독자들이 경험한 질병 빈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말한 바 1930년 당시 77.73%가 문맹이었으므로 신문에 투고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질병들만을 가지고 당대의 질병 분포, 추이를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기재된 증상과 이에 대한 의사들의 해석, 조언들을 보면서 당시 질병에 대한 인식과 범주화 방식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일부 흥미 있는 부분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신경 쇠약

우선 가장 많이 상담된 질병이었던 신경 쇠약(신경증)의 경우 주로 독자들은 신체적 피로, 감각 저하, 정신적 혼미,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감퇴, 몽정, 꿈, 성욕 부진 등을 호소하였다.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남성들이 주로 호소하였고 두통, 우울증, 식욕 부진, 다한 등의 증상을 함께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리 신경 쇠약이라고 단정하고 치료를 묻는 일도 많았다.

신경 쇠약(neurasthenia)은 1869년 뉴욕 의사 조지 밀러 비어드(George Miller Beard)가 처음 진단명을 사용한 질병이었다. 비어드는 ‘신경의 에너지(nervous energy)’ 이론에 기초해서 만약 이 에너지가 박탈되거나 남용되면 신경이 탈진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개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 난 신경 에너지 총량이 각 장기로 전달된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뇌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는 장기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²⁰ 비어드는 두통이나 불면, 미주 신경통, 소화 불량, 빈맥 등을 신경 쇠약의 증상으로 지목하고 지식층이나 두뇌 노동자들이 이 질환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았다. 즉 서구에서도 신경 쇠약은 도시 중상류층의 질병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신경 쇠약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진단명으로는 점차 소멸되었으며 중국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본 및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서구에서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1921년 모리타 소마(森田正馬)가 신경 쇠약

²⁰ Barbara Sicherman, “The Uses of a Diagnosis: Doctors, Patients, and Neurasthenia,”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2:1 (1977), pp. 33-54.

환자들을 ‘모리타 치료법’의 주 치료 대상으로 삼았고, 그의 치료법은 중국, 일본, 대만, 조선 등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²¹ 조선에서는 1901년 『황성신문』에서 중국 서태후가 심로(心勞)로 인해 신경 쇠약에 걸렸다는 보도가 신경 쇠약을 소개하는 첫 기사였다.²² 이외 독일 빌헬름 전 황제가 신경 쇠약에 걸렸다는 기사, 신경 쇠약으로 비판하여 자살 시도한 여성에 대한 기사 등이 보도되면서 신경 쇠약이란 병이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외국의 신경 쇠약 병명을 접하는 동시에 서양 의학을 학문으로 접하면서 신경 쇠약 병명은 좀더 국내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심호섭은 1915년 신경 쇠약증을 설명하면서 그 증상을 뇌성 증상, 척추성 증상, 맥관운동성 및 분비성 증상, 내장성 증상, 생식기성 증상 등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²⁴ 외국에서는 전기 치료나 마사지 요법을 시술했고, 비소제와 철, 인산 등으로 만든 치료제를 복용시켰다.²⁵ 그러나 조선의 경우 “지상 병원”에서는 브롬화칼륨 등 브롬제를 많이 처방했으나 의사들은 브롬제를 쓰더라도 해로운 경우가 많다고 보았고, 비소제나 인산, 베로날도 같이 처방하였다.²⁶

“지상 병원”에는 신경 쇠약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고, 의사들 또한 신경 쇠약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인식하고 “근래 청년 남녀에게 일종의 유행병”이라고 하며 “진성 신경 쇠약은 따로 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경 쇠약에는 종류가 많았다. 몽정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생식기 신경 쇠약”, 어지러운 증상에는 “뇌 신경 쇠약”, 몸이 때때로 차면 “혈관 운동 신경 쇠약”, 두통과 흥통 등에는 신경 쇠약의 일종으로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하기도 하였다.²⁸ 의사들은 신경 쇠약에 관하여 브롬화칼륨, 브롬화나트륨, 고미팅크[苦味丁幾] 등의 처방을 내리는 한편 심신 안정, 수음 금지, 규칙적 생활, 가

21 Tsung-Yi Lin. “Neurasthenia Revisited: Its Place in Modern Psychiatry,”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3:2 (1989), pp. 105-129.

22 “西太后的 病狀”, 『皇城新聞』, 1901. 5. 27.

23 “구미전보: 獨帝는 신경 쇠약”, 『매일신보』, 1917. 3. 28; “단도로 자살코자, 신경 쇠약에 걸린 여자”, 『매일신보』, 1917. 5. 23.

24 沈浩燮, “(講義錄)神經衰弱症”, 『醫藥月報』, 2권 5-6호 (1915), 34-38쪽.

25 Paul Hartenberg, *Treatment of Neurasthenia* (Edinburgh: H. Frowde and Hodder [and] Stoughton, 1914).

26 “神經衰弱座談會(1),(2)”, 『朝鮮醫報』 4권 3호 (1934).

27 “신경 쇠약”, 『동아일보』, 1932. 4. 6일.

28 “몽정증”, 『동아일보』, 1938. 1. 18; “어즈러운병”, 『동아일보』, 1932. 3. 4; “혈관운동 신경 쇠약”, 『동아일보』, 1933. 11. 13; “가슴을 다쳐”, 『동아일보』, 1932. 9. 28.

벼운 운동, 그리고 직업 또는 취미 생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외모에 대한 불만

신경 쇠약 외에 높은 비율로 상담을 구한 것은 외모에 대한 불만이었다. 주로 여드름, 피부의 흉터, 탈모, 백반, 키, 몸무게, 이목구비의 모양, 생식기 크기에 대한 불만이나 수치심을 토로하며 성형이 가능한지 질문하였다. 이 중 제일 많이 문의된 것은 여드름과 탈모였다. 여드름에 관해서는 총 67건의 상담이 있었고, 탈모에 관해서는 54건의 상담이 있었다. 여드름의 경우 얼굴이 아닌 가슴과 등에 나는 문제, 치약을 세면 시에 녹여 세수하는 방법의 효용 문제, 여드름을 짜면서 생긴 진물과 농의 문제도 물었다. 약방에서 파는 여드름 백신 주사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²⁹

의사들은 여드름을 ‘심상성 좌창’으로 명명하고 변비나 소화 장애 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먼 압출기로 내용을 제거한 후 ‘굼뎠도씨액’을 바르라고 권하거나, 자극이 적은 비누로 씻으라고 하였다.³⁰ 그 외 치료법으로 “자가확진법(세균항독제를 주사놓는 법)”이 효과가 있으나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권하였으며, 엑스선 치료를 권장하기도 하였다.³¹ 과산화수소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³²

탈모에 관해서는 모발 이식법, 생모 방법을 직접적으로 질의하기도 하였고 각종 약들, 예를 들어 매약(賣藥) “기미가요(君がよ)”, “아라메[荒布]” 해초 등의 효과를 묻기도 하였다.³³ 의사들은 혈청 검사를 받을 것, 광선 치료를 받을 것, 인공 태양등이나 수은·석영을 쬔 것 등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³⁴

키와 몸무게에 관해서는 “키만 자라서 도무지 살이 찌지 않는다”, “얼굴이 살이 없어 보기가 흉하다”, “신장이 자라지 않는다”, “허리가 가늘다” 등의 불

29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4. 2;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10. 5;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9. 5.

30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9. 4; “여드름”, 『동아일보』, 1934. 12. 26.

31 “여드름”, 『동아일보』, 1934. 11. 22; “여드름”, 『동아일보』, 1934. 11. 17; “코등이 붉어”, 『동아일보』, 1934. 11. 23.

32 “얼굴이 곱은데”, 『동아일보』, 1938. 12. 6.

33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9. 4;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12. 2;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1. 5. 13;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5. 3. 2.

34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4. 2. 26; “머리털이 빠져”, 『동아일보』, 1935. 9. 3; “원형탈모증”, 『동아일보』, 1931. 8. 5;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12. 6.

만을 제기하였다.³⁵ 이목구비에 관해서는 “눈썹이 얇다”, “눈이 밍다” “코가 잘못 생겼다” 등 다양하였다.³⁶ 여드름이나 탈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모에 관한 호소에 대해 의사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마음이짐을 바꾸라”는 등의 ‘정서적’ 조언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코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당시 유행하던 용비술을, 탈모의 경우에는 인공 태양등, 여드름 및 주근깨의 경우 약물 및 주사 처방, 비만의 경우 설사약 등 적극적 치료를 권하기도 하였다.

③ 성에 관한 질의들

성에 관해서는 성별로 질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많았다. 여성들은 월경 관련 문제나 불임, 자궁 관련 질병, 산후 조리 문제, 임신 중 질병 등에 관해서 많이 질의하였고 의사들은 기본적인 임신 관련 지식을 계몽하는 한편, 자궁후굴이나 자궁내막염 등 자궁 문제가 있다고 본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권하기도 하였다.³⁷ 임질, 매독 등 성병에 관해서는 남성들이 주로 많이 물었으며, 살바르산 606호 주사나 수은 치료 등이 보편적인 치료로 권장되었다. 의사들은 이들 질



그림 3. 1930년대 유행했던 “호리크 진공수치기(ホリック真空水治器)” 광고(좌: 1933. 4. 26; 우: 1933. 10. 17).

35 “살찌는 법”, 『동아일보』, 1932. 6. 12; “마른 사람”, 『동아일보』, 1931. 2. 24; “허리가 가늘다”, 『동아일보』, 1930. 10. 5.

36 “눈썹이 얇아”, 『동아일보』, 1934. 10. 31; “눈이 미워”, 『동아일보』, 1935. 5. 10; “코가 흉해”, 『동아일보』, 1934. 7. 8.

37 “허리와 다리가 켜겨”, 『동아일보』, 1932. 3. 29.

병이 완치가 어렵고 성교나 혈액, 타액에 의한 전염 위험성과 재발, 만성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여러 차례 주지시켰다. 한편 남성들은 유정이나 수음, 꿈을 많이 꾸는 것 등 증세에 관해 신경 쇠약 등을 우려하며 불안을 호소하였고 의학적 차원의 문제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성 생식기 확대 요법으로 당시 매체를 통해 많이 광고되고 있었던 “호리크 진공수치기”의 효과를 내담자들이 많이 물었으나 의사들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4. 신문 의학 상담란의 역할과 의의

1) 서양의 근대 의학 지식이 ‘상식’으로 보급되는 과정

일제 강점기 서양 의학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지상 병원”과 같은 의학 상담 코너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지상 병원”과 같은 의학 상담 코너는 당시 성행 하던 대중 강연이나 일반적 의학 관련 기사와 유사하게 대중이 의학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다. 지상 병원이 문의를 할 때나 신문에 실릴 때 모두 ‘한글’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독자에게 ‘열린’ 코너가 될 수 있는 장치였다. 그러나 다른 수단들보다 “지상 병원”과 같은 신문 의학 상담 코너가 독특한 것은 대중과 지식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면으로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문 의학 상담 코너를 통해 당대 대중과 지식인의 의학 지식 성격, 두 집단 간의 의학 지식 교환, 이동 양상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지상 병원”이라는 사례를 통해 당대 의학 지식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수용되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상 병원”을 통해 당시 서양 의학 지식이 대중들에게 하나의 ‘상식’(常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들 스스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대하여 병명과 치료법을 한꺼번에 문의하기도 하였지만, 증상을 보고 미균성, 각기병, 신경 쇠약 등의 병명을 미리 생각하고 치료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1933년 9월부터 “지상 병원” 두고 규정 자체에서 병명을 밝히도록 하면서부터, 투고자들은 자신의 증상으로부터 병명을 미리 정리하고 문의해야 했다.³⁸ ‘도라흠’, ‘주근개(주근개)’ 등의 단일 증상들 또한 서양 의학 프레임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는 독자

들이 증상을 상의할 때 필요한 전제 조건이자 상식이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서양 의학 지식이 그만큼 신문 독자들에게 일상적인 지식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상 병원”에서 서양 의학 지식의 대중화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 병원” 자체가 대중들에게 상식으로서의 서양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참고서’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지상 병원” 편집자들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코너로 문의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같은 병을 다른 사람도 문의하는 일이 있는 것이니 다른 사람 것도 잘 읽어보고 같은 병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³⁹ 상담란을 접하는 독자들이 스스로 다른 이들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독자들도 편집자도 본 상담란을 일종의 ‘의학 백과 사전’과 비슷하게, 여러 사람의 상담 내용을 통해 참고할 만한 의학 지식이 축적되는 곳으로 보았다. 즉 “지상 병원”에 실린 증상과 처방 등의 지식은 그 자체로 참고할 만한 ‘상식’이 되었다.⁴⁰

이렇듯 “지상 병원”은 의학 지식 사전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 사전이 아니라 ‘대중적’ 지식의 집약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는 대중 출판물 지면에 유통되는 의학 지식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또한 의학 지식의 전달은 단순한 의사에게서 대중에게로 전달되는 일방향의 지식 전달이

38 “지상 병원 규정”, 『동아일보』, 1937. 9. 18. “날마다 지상 병원에 드러오는 엽서는 참으로 놀랄만치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본의는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은 다음의 몇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일, 반듯이 엽서에 순한글로 쓰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괄호를 치고 한문자를 쓸 것. 일, 반듯이 병명(病名)을 간단하게 부칠 것. 일, 봉투에 너흔것과 한문자를 섞어서 쓴 것은 해답하지 안함.”

39 “지상 병원 규정”, 『동아일보』, 1937. 9. 18.

40 자신의 몸의 증상에 대해 의학 사전을 찾아보는 지식인 계급은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보는 다행하게도 중이 질환(中耳疾患)을 가진 듯 싶었다. 어느 기회에 그는 의학 사전을 뒤적거리 보고, 그리고 별 까닭도 없이 자기는 중이가답아(中耳加答兒, catarrh)에 걸렸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사전에 의하면 중이가답아에는 급성 및 만성이 있고, 만성 중이가답아에는 또다시 이를 만성 건성(慢性乾性) 및 만성 습성(慢性濕性)의 이자(二者)로 나눈다 하였는데, 자기의 이질(耳疾)은 그 만성 습성의 중이가답아에 틀림없다고 구보는 착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구보는 그의 바른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언제나 수이 전문의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1년이나 그대로 내버려둔 채 지내는 그는, 비교적 건강한 그의 바른쪽 귀마저 또 한편 귀의 난청(難聽)으로 그 기능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불원한 장래에 ‘툼케르청장관(聽長管)’이나 ‘전기보청기’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 중에서)

라기보다 대중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서양 의학 프레임 하에 번역·전달하며, 다시 의사들이 서양 의학 프레임으로 재번역하는 다층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정을 거쳤다. “지상 병원”과 같은 신문 지면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의학 대중 저서를 통해 당대 대중이 의학 지식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닌 전문가들도 대중들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양상은 위르겐 링크(Jürgen Link)의 ‘전문 담론’과 ‘상호 담론’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⁴¹ 즉 의학의 전문적 지식이 ‘전문 담론’이라면, 의학 전문가와 일반 신문 독자와의 상담 과정은 ‘상호 담론’의 일종인 것이다. 이 때 의학 전문가는 단순히 의학 전문 용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언어나 기존의 전통 의학 용어들을 활용하여 의학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대중들 또한 의학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학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일상 용어, 또는 민간 의학 및 전통 의학들을 활용하여 번역·수용하게 된다. “지상 병원”의 상담 내용들을 일방적인 의학 권위의 전달이 아닌, 다층적인 프레임들을 이용한 소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하면 상담에 참여한 의사들은 단순히 의학 전문 용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고 내용을 참고하여 당대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

41 링크는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담론을 ‘전문 담론’과 ‘상호 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 사회 제도에서 쓰이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언어, 즉 담론을 링크는 ‘전문 담론’이라 부른다. 그런데 링크는 담론의 전문화는 동시에 담론의 통합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해당 전문 담론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담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전문 담론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통합 과정 없이는 사회 안에서의 전반적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전문 담론은 이미 대중에게 친숙해진 다른 전문 담론들의 상용화된 어법이나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비유나 상징, 알아보기 쉬운 도표나 통계 혹은 그림 등의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이 의미하는 것을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의 대화 실천 영역에서 일상적 언어와 전문적 언어를 쉽게 연결시켜 주는 표현 수단들을 링크는 “기초 문학 양식(elementar-literarische form)”이라고 부른다. 바로 여기서 상이한 전문 담론들 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휘나 표현 양식 등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이 ‘상호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처럼 ‘상호 담론’은 하나의 전문 담론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 담론들과의 관계 아래 다양하게 쓰이는 요소들을 가공하여 자신의 담론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호 담론은 각 전문 담론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그것들과 일상 언어 영역과의 의사 소통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Jürgen Link und Ursula Link-Heer, *Diskurs/Interdiskurs und Literaturanalyse* (München, 1980); 남운, “담론 이론과 담론 분석 문예학의 입장과 전략”,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정서사, 2002).

인 용어로 전달해야 했다. 엄격한 서양 의학 지식의 전달이 아닌 투고(내담)-답변이라는 대중적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 의학의 용어는 대중적 이해 수준에 알맞은 용어로 번역되어야 했고 때로는 한의학적인 개념과 민간 의학 용어도 수용하였다. 특히 피부 관련 질환 등은 전문가들도 독자들의 민간 의학 용어를 전문 용어로 일대일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전풍(癩風, 폐풍)’은 ‘어룻’이나 ‘어르레기(어루러기)’라는 속명을 가지는 것으로 번역하였다.⁴² 그리고 간반(肝斑)의 경우 기미나 검버섯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마귀를 지칭하기도 하였다.⁴³ 비듬은 지루증 또는 지루염으로, 연주창은 임파선염으로, 희역(흰 반점)은 백전풍(白癬風)—서울에서는 ‘백납이’라 부르는 것—으로 해당 질병의 성격과 그 치료법을 설명하였다.⁴⁴

그러나 모든 일상 용어가 전문 용어로 번역될 수는 없었다. 특히 내담자가 복잡한 한의학적인 개념의 일상 용어를 사용할 때 의학 전문가들은 의학 용어로 번역할 수 없었다. ‘간기(肝氣)’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한 독자가 “저는 청춘의 여성으로서 자녀 사오남매 출산하얏습니다. 그러나 아이마다 간기(肝氣)로 해서 경풍(驚風)에까지 이르고 따라서 음식에 체해서 조금 열만 있어도 경풍을 하게 되오니 출산 당시에 무슨 특효한 약을 복용시켜서 간기경풍을 없이 하는 가정 치료법을 하교하심을 바라나이다”라고 묻자 이선근은 “간기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고, 경풍의 원인은 종류가 하도 많은 고로 한번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한다.⁴⁵ ‘습각(濕脚)’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⁴⁶

“지상 병원”과 같은 신문 상담란은 내담자들이 짧게 적은 증세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흰 점’, ‘땀이 참’ 등의 간단한 증상만이 적혀 있을지라도 의사들의 의학 지식 체계로 번역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속명은 수월하게 번역되었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증상을 내포하거나 증상을 하나의 질병으로 환원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번역되기 어려웠다. 이

42 “전풍”, 『동아일보』, 1932. 8. 27.

43 “얼굴에 검버섯”, “기미빠는 처방을”, 『동아일보』, 1938. 12. 1; “사마귀”, 『동아일보』, 1938. 9. 15.

44 “머리에 비듬”, 『동아일보』, 1935. 10. 4; “편도선”, 『동아일보』, 1935. 6. 14; “백납먹은 것들”, 『동아일보』, 1931. 8. 8.

45 “간기치료법”, 『동아일보』, 1935. 11. 15.

46 “지상 병원”, 『동아일보』, 1930. 10. 3.

러한 측면은 당대 의학 지식의 공론화가 다양한 수준의 번역과 번역되지 못함을 동반하는, 순수한 지식의 순환이 아닌 잡종(hybrid) 개념의 순환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 다양한 속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양 의학 용어와 결합하여 번역되거나 그러하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상담 투고를 통한 대중들의 ‘근대적 환자’ 되기 훈련

상담란에 투고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나 징후, 증상들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담 투고를 통해 신문 지상에 ‘적극적 내담 환자’라는 하나의 주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지상 병원” 내담 환자들은 “지상 병원” 코너에 사연을 보낼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담 내용을 글로 읽고,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이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 “지상 병원”의 내담 환자의 주체성은 진료실 안 의사 앞에서 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성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공개적인 지면상에서 자신의 증상을 묘사할 수 있어야 했고 지면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태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정된 지면에서 한 번의 상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증상을 가능한 한 상투적이지 않고 튀는 것으로 그럴 필요가 있었으며, 그리고 간단하고 간결한 문장으로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식의 감정적·정서적 고통의 나열로는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지면 상담 기회는 병명과 의학적 증상을 최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시선으로 설명한 사연들에게 주어졌다. “지상 병원”의 투고 규정은 이들 내담 환자가 자신들의 증상을 설명할 때 하나의 규칙이자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다. 내담자들은 투고 시 “묻는 사항은 반드시 요령 있게 간단히 쓸 것”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몸의 증상을 의학적 증상으로 개념화하고 의학적인 시선을 내면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병명과 의학적 증상을 잘 정리한 질문은 답변을 수월히 얻었으나 단순히 증상(예: 흉통)만을 얘기하는 경우는 지면에 실려도 제대로 된 대담을 얻기 어려웠다. 편집부가 지속적으로 투고 규정을 제시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편집 방침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을 훈련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상 병원”의 상담 투고 규정은 꽤 자주 공지되고 수시로 바뀌었다. “지상 병원” 편집부는 상담 투고 규정에

많은 공을 들였고, 게재될 의학 상담과 그렇지 않은 상담의 구분을 엄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담’을 위해 독자들에게 특정 작성 지침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고 규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 병원”에 실린 상담, 즉 담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상 병원” 상담 투고 규정 공지는 총 5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재 시작 당시인 1930년에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코너에 대한 문의 편지가 쇄도하자 편집부는 “요사이 ‘지상 병원’에 투고하시는 분이 날마다 수십 명씩이나 되는데 제한 있는 지면에 많이 실을 수도 없고 하니 … 다음의 규정을 잘 보시고 꼭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다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투고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경우에만 접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투고 규정은 공통적인 요소도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변화한 것도 있었다. 편집부는 투고 규정으로 우선 간단명료하게 쓸 것, 엽서에 쓸 것, 한글로 쓸 것을 내세웠고, 이는 “지상 병원”이 지속되는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한 내용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지상 병원” 투고 규정의 변화 과정

규정	실제 지면에 실린 표현	게재 시기
반복 게재 문제	“한 번 난 것은 다시 묻지 말 것”	1931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 발표된 것은 다시 묻지 말 것”	1932
	“발표한 지 한 달쯤밖에 안 된 같은 증세는 다시 묻지 말 것”	1933
	“이미 대답한 것은 ‘지상 병원’ 기사를 탐독해서 다시 묻지 않도록”	1933. 12. - 1939.
내용의 선정성	“지상에 발표하기 거북한 증세 묻지 말 것”	1933. 5. 14. - 1933. 7. 20.
	“장난삼아 쓰지 말 것”	1933. 9. 27.
	“성에 관한 노골적인 것 받지 않음”	1933. 10. 26.
	“성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간단한 증상만 적고 외설에 흐르지 말 것”	1933. 12. 15. - 1934. 1. 28.
내담자 신상 정보	“성별과 연령을 기재할 것”	1932. 6. 22. - 1933. 7. 20.
투고 제목	“비두(飛頭)에 증세를 한 마디로 뽑아 놓을 것”	1933. 5. 14.

규정	실제 지면에 실린 표현	제재 시기
	엽서 처음에 병명을 꼭 쓸 것	1933. 9. 27. - 1935. 12. 4.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 병원” 투고 규정의 변화 과정은 상담 문답이 일종의 ‘약식 문진(問診)’으로 발전하면서 매뉴얼이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재가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나면서 성별과 연령을 꼭 기재토록 하고 지면에도 성별과 연령을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연재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서 상담자 자신의 증상을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과목에 한정해서 정확한 병명으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나중에는 모든 상담에 ‘제목’, 더 나아가 ‘병명’으로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담에 제목과 병명으로 요약해달라고 규정한 것은 진료실 문진과는 다른 지면 상담의 한계상 가능하면 빠르게 증상을 판단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놓은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대중들이 “쉽고 빠르게 위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코너 개설의 배경과는 모순된 것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 신지식에 익숙한 신문 독자 대중(투고자)의 의학 지식이 일종의 대중 문화처럼 성장하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지상 병원”의 모태가 된 “응접실” 코너에서 의학을 자습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 대사전” 같은 일본에서 발행된 사건을 탐독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편집국에서는 투고 규정을 통해 동일한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기존 “지상 병원” 기사를 한번 탐독하여 참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습 권유를 통해 독자들의 자체적 의학 상식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즉, 어느 정도 학습된 대중들이 “지상 병원” 코너에 참여하게 하였고 대중들이 코너 참여를 통해 지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상 병원”에서는 성적인 내용에 대하여 강하게 규제하였다. 처음에는 “지상에 발표하기 거북한 증세[는] 묻지 말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성적인 내용 금지”는 “장난삼아 쓰지 말 것”, “성에 관한 노골적인 것 받지 않음”, “성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간단한 증상만 적고 외설에 흐르지 말 것” 등으로 바뀌었다(표 4). 이들 규정을 통해 당시 성병에 관하여 투고하는 등의 이유로 성적인 내용에 대한 투서가 상당량 있었고, 신문으로서는 이를 걸러내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상 병원”에서 실린 주요 질병 통계(표 2)에서 볼 수 있듯, 성병에 관한 투고는 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지면에도 자주 실렸다.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성병 증상을 묻는 표현과 소위 ‘외설적’ 표현 사이의 구분과 검열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적인 내용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성병, 생식기 증상 및 문제 등을 매개로 투고된 “은밀한 신체 현상”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았고, 공개 지면상의 질병 상담에 있어 어느 정도 ‘외설적’인 표현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3) ‘상담 진료’를 통한 대중 계몽과 ‘서양 의학’의 헤게모니 확산

경제적인 이유로 서양식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당대 독자들에게 “지상 병원”은 당시 가장 유능한 전문의에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독자들은 “가정 형편상 의사의 약을 쓸 수가 없으니 치료법과 처방을 하교하여 주십시오(평양생)”라고 하거나 “가정 형편상 지금은 병원에 가서 수술은 할 수 없사오니 가정에서 눈역이 빨진 것이 없어지며 낫도록 치료 처방을 하교하여 주십시오(농촌생)”라고 하면서 직접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상담 의사들이 알려주길 요청했다.⁴⁷ 의사들 또한 주변에서 구하거나 살 수 있는 처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꾸준히 복용하라”고 “하교(下敎)”하였다.

의사들의 이러한 가정 치료법 제시는 당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신문 지상에서 꾸준히 특집으로 가내 치료 및 자택 치료를 다루었던 “가정 의학”, “가정 부인”, “가정 간호” 등 코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정 의학”, “가정 부인”, “가정 간호” 등의 일반적인 자택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지상 병원”은 상담 의사가 개별 상황에 맞추어 직접 자택 치료법을 알려줌으로써 더욱 효과적이면서 신뢰를 받는 치료법이 될 수 있었다. “지상 병원”은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진 ‘상담 진료’의 한 형태인 동시에 대중에게 보다 잘 모방할 수 있는 자택 치료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만성 인두염의 경우 “목구멍에 루고루액이나 초산은수를 바를 것, 과산화수소로 양치할 것”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간질이나 발작에는 루미나루분이나 크롭나트륨, 소화 불량에는 디아스타제나 마그네슘 등이 일차약으로 권장되었다.⁴⁸ 대체로

47 “관절염”, 『동아일보』, 1934. 3. 18; “도라흙”, 『동아일보』, 1934. 10. 16.

48 “목에 가래가 생겨”, 『동아일보』, 1937. 10. 29; “간질발생”, 『동아일보』, 1932. 12. 11; “전간”, 『동아일보』, 1937. 11. 18; “위가다루에 변비”, 『동아일보』, 1933. 8. 4.

서양 근대 의약품들을 구입, 자택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 처방을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신뢰할 만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당시 상황에서 “지상 병원”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약제에 대한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였다. 독자들은 일반 약재뿐만 아니라 시중에 흔한 매약, 새로 등장한 약, 음식 등의 효능도 “지상 병원”을 통해 검증받고자 하였다. “지상 병원”에는 한약제에 대한 문의도 곧잘 등장하였다. “비위가 약하여 의생에게 문의하였으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한약은 어떠한 것이 적당하며 양약은 어떠한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한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양약의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⁹ 무좀이나 모반, 액취 등 피부 질환, 임파선염에 대해서는 엑스선의 효과를 물어보기도 하였다.⁵⁰ “네오블루토”나 “알젠블루토”, “단미포리타린” 등의 새로 나온 강장제류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다.⁵¹ 이러한 치료약과 기술의 효과 문의에 관해 의사들은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라고 답하거나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일차적인 상담을 제공하였다. “지상 병원”은 상담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였다. 의학 지식을 통해 의사로서의 권위를 진료실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외과적 질환의 경우 서양 의학의 권위를 분명히 세울 수 있어, 축농증이나 치질, 탈장 등에 관해서는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자신있게 확답할 수 있었다.⁵²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매 시기마다 각 과에서 한 명씩만 상담을 담당하였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의라는 자부심이 부여될 수 있었다. 이는 상담 마지막에 소속, 전문 분야, 이름을 적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위 ‘상담 진료’ 만으로는 온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사연만 보고는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없었던 상담 의사들은 “전문 의사에게 직접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임질, 성병, 중이염 등 진료실에서 직접 진찰·치료하고 경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문의한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직접 진료를 받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⁵³ 이에 대해

49 “한약과 양약”, 『동아일보』, 1932. 3. 15.

50 “모반”, 『동아일보』, 1938. 9. 13; “무좀”, 『동아일보』, 1936. 1. 19; “나력근치엔”, 『동아일보』, 1931. 11. 8; “겉땀이 심해”, 『동아일보』, 1938. 9. 2.

51 “신경 쇠약”, 『동아일보』, 1934. 12. 8; “빈혈과 신경 쇠약”, 『동아일보』, 1934. 4. 20.

52 “탈장중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6. 3. 28; “항문이가 혈었어”, 『동아일보』, 1936. 3. 28; “취각이 둔하야”, 『동아일보』, 1936. 4. 18; “사팔눈”, 『동아일보』, 1934. 4. 29.

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편집부는 다음과 같이 답하며 이것이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설사 “지상 병원”에 문의해서 답을 얻지 못하거나 병원을 찾기 어려워도, 서양 의학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문】 “지상 병원”란에 병세를 문의하오면 대개로 직접 전문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하오니 경제상 기타 형편으로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찌 하랍니까?

【답】 “지상 병원” 응답에 전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 흔히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병의 징후를 적어보낸 데 [대해] 해(該) 방면의 고문 의사로서 본 때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 둘째 그 병세는 명기되어 있으나 그러한 병세를 나타내는 데 원인이 하나만 아니므로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병원을 단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처방할 수도 없는 경우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고문 의사로서는 독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⁵⁴

4) 특정 질병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와 불안

“지상 병원”의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사연이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연을 투고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궁금증 뿐만 아니라 더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체가 알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를 서양의학에 의거해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치심을 무릅써 가며 자신의 신체의 문제를 스스로 누설했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의 바탕에는 성병이나 나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신의 신체에 따른 불안에는 특정 질병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으며, 만드시 신체적 고통만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다. ‘아픈 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수동적 회피 이상으로 “보기 좋은 신체”, “아모 문제 없어 보이는 신체”와 같이 ‘더 나은 몸’에 대한 적극적 욕망들이 내담 사연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

53 “늑간신경통에 임질”, 『동아일보』, 1936. 6. 3; “만성중이염”, 『동아일보』, 1934. 9. 19; “채독”, 『동아일보』, 1933. 9. 12; “수족이 차지어”, 『동아일보』, 1933. 5. 19; “설사가 나”, 『동아일보』, 1934. 2. 15.

54 “응집설”, 『동아일보』, 1936. 6. 14.

한 내담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내담자들의 신체에 대한 세부적 욕망은 탈모, 털의 문제, 체격 및 비만의 문제, 얼굴 교정, 용비술, 생식기 약소의 문제 등 다양하였다.

상담의들은 내담자들의 특정 질병에 대한 우려에 대부분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려를 완화시켰다. 나병이 전염 또는 유전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병균은 전염은 물론 됩니다. 유전된다고 증명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⁵⁵ 한 달에 1-2회의 유정이나 몽정에 불안해 하는 10-20대 남성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현상”임을 말해 주었다.⁵⁶ 수음과 생식기의 크기, 불임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생식기의 단소가 생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주거나 수음과는 상관없다고 대답해 주었다.⁵⁷

반면 특정 질병에 대한 내담과 응답이 반복되어 신문 지상에 노출되면서 대중들에게 오히려 공포를 확대 재생산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특히 하나의 신체 증상이 신문 지상에서 주요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로 운위되면서 이러한 공포는 더욱 가중되었다. 대하증 증상 하나로 임질인지 묻는 경우도 있었고, 여드름만으로 매독인지 묻는 경우, 전신의 피부가 아픈 것이 매독인지 묻는 경우, 콧속이 헐어서 아픈 비염 증상도 매독인가 하여 검사한 경우 등 가벼운 증상 하나로 성병 등 중병을 의심해서 내담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⁸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의사는 “일단 매독을 의심하지만 매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단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불안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사들이 도리어 가벼운 현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음으로 생식기 약소, 조루, 신경 쇠약이 온다고 확인하고 빨리 고치라고 하거나, 몽정 또는 꿈이 많은 것은 신경 쇠약의 한 증세라고 확인하는 등 곧잘 수음, 몽정, 수면 문제 등을 문제적 질병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였다.⁵⁹ 이러한

55 “나병은 유전? 전염?”, 『동아일보』, 1935. 12. 13.

56 “유정몽정”, 『동아일보』, 1936. 1. 28; “유정”, 『동아일보』, 1936. 3. 28.

57 “생식기가 적어”, 『동아일보』, 1935. 2. 12.

58 “대하증”, 『동아일보』, 1935. 3. 8; “매독?”, 『동아일보』, 1935. 4. 24; “전신이 아파”, 『동아일보』, 1935. 10. 17; “콧등이 압흔데는”, 『동아일보』, 1936. 3. 26.

59 “혈색이 조지 못해”, 『동아일보』, 1938. 1. 11; “음경이 약소”, 『동아일보』, 1937. 8. 5; “몽정이 나와”, 『동아일보』, 1933년 11. 10; “몽정증”, 『동아일보』, 1938. 1. 18; “물이 만허요”, 『동아일보』, 1932년 4. 5; “꿈을 꾸어”, 『동아일보』, 1934. 4. 11.

상담의들의 태도는 내담자들의 불안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기제로 작동했으리라 짐작되지만, 사실상 당시의 의학 수준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기에 뵈족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지상 병원”이라는 의학 상담 코너는 당대에 서양의 근대 의학 지식이 신문의 독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1930년대에는 신문이 독자들과 인터랙티브한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문답 코너들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상 병원”은 몸과 질병에 관한 고민을 의사들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민 상담 코너들보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이었다. 그래서 신문이 1940년에 종간되기 직전까지 “지상 병원”은 꾸준히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문 상담란은 일제 강점기 의학 지식에 대한 수용과 전파를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의 장이었다. 독자들을 위해 개설된 의학 상담 코너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대한 고민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질병, 몸, 치료제 등의 속설에 대해 질문하고 확인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상식’으로 전유하게 되었다. 즉, 이 당시 신문 독자라는 일종의 근대적 지식 계층이 ‘내담’이란 형식을 통해 의학 지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상 병원”을 통해 당시 서양 의학 지식이 대중들에게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고 규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의사에게 질문하는 방법,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상 병원”은 신문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근대적 환자 되기’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지상 병원”은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진 ‘상담 진료’의 한 형태인 동시에 대중에게 보다 잘 모방할 수 있는 자택 치료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위 ‘상담 진료’ 만으로는 온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사연만 보고는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없었던 상담 의사들은 “전문 의에게 직접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양식) 병원에 찾아가게 됨으로써 당대 의학의 체계모니가 전통 한의학에서 서양 근대 의학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지상 병원”에 상담을 청하는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궁금증 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체의 문제를 드러냈고, 상담의들은 내담자들의 특정 질병에 대한 우려에 대부분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려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특정 질병에 대한 내담과 응답이 반복되어 신문 지상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신문을 구독하는 대중들에게 공포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문의 의학 상담 코너는 한편으로는 질병에 대한 독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더욱 조장하여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학 지식에 주목하게 만들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신문 상담란을 통해 당대의 신문 독자들이 공개 내담 과정을 통해 의학 지식을 수용하고,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며 의학 지식을 상식화하는 양상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의학 지식이 의사에게서 환자와 사회로 전달되는 일방향의 과정이 아니라, 의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독자(환자) 스스로 증상을 해석하여 전달하고, 의사 또한 이를 전문 지식으로 재해석하는 양방향의 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서양 의학은 본격적으로 근대적 지식의 위상을 차지했으나 한편으로 지식의 습득-번역-재번역의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만으로 구체적인 지식의 번역-재번역의 과정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일제 강점기 의료 지식문화 전반의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 2015년 3월 23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5년 4월 14일)

The Body Image and Medical Knowledge of the Korean Public in the 1930s through the Medical Advice Column “Jisang byeongwon(Hospital on Paper)”

CHOI Eun-K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LEE Young-A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dical advice column “Jisang byeongwon(紙上病院, hospital on paper),” which was published in one of the major newspapers in colonial Korea, *Dong-A Ilbo*, during the 1930s. We aim to capture and demonstrate the body image and medical knowledge of the Korean public. Various advice and consultation columns appeared in newspapers during the 1930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readers. Among them, the medical advice column “Jisang byeongwon” was popular, because it featured direct counseling with medical professionals.

“Jisang byeongwon” appeared 1,597 times including advice for a total of 3,888 cases. A wide variety of people submitted their medical problems. In terms of sex, male(2,142) appeared two times as much as female(988). The age of the contributors were mostly from the late teens to thirties, though a 20 day-old baby and 80 year-old women also participated. The most frequent medical problems were “neurasthenia”(180) and “gonorrhea”(115). The rest were parasitic disease, syphilis, hemorrhoids, acne, rhinitis, hair loss, otitis media, urine problem, and leucorrhea.

“Jisang byeongwon” was a sort of public arena, which revealed the acceptance, transmission, and interaction of medical knowledge. The readers publicly questioned the popular beliefs of disease, body and remedies, and were reassured by the medical knowledge disbursed by the physicians. Meanwhile, the editors announced the submission rule, which included the appropriate style of questioning and description of symptoms. It trained the readers as “modern patients.” The column also provided opportunities to take home-made Western-style remedies. Moreover, the medical knowledge was not only transferred from medical professionals to patients, but was also translated from the patients to medical professionals through counseling. It shows that although Western medicine was promoted as modern knowled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involved a repetitive and insecure process of the acceptance, interpretation, and reinterpretation.

Keywords. medical knowledge, body image, medical advice column, neurasthenia, Jisang byeongwon(hospital on paper)